

차베스정권 개헌 실패의 의의와 전망*

- 중남미 좌파에게 독인가 약인가? -

송영복**, 김동엽, 김승수, 박경주, 박장면
박정훈, 박진, 오동진, 이재한
임성준, 정나래, 정유경, 최우철

목 차

들어가는 글

I. 개헌안 부결의 의미와 전망

- I-1 이번선거 독재심판 아니다. 국민들은 좌파 정권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 I-2 건실한 좌파민주주의가 중남미에 더욱 공고해 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I-3 차베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 I-4 미국의 대대적인 선거개입과 언론의 차베스 죽이기
- I-5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개입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I-6 다음은 볼리비아를 주목해야한다

II. 개헌안 부결이 좌파의 쇠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 II-1 역사적 요인
- II-2 미국의 요인
- II-3 중남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요인

나가는 글

들어가는 글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외교, 경제적인 화두는 좌파다. 200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된 좌파 휘몰이가 단순한 유행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베네수엘라

*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 전공수업인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문화 II>, 2007년 2학기 수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고 보충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 논문 준비과정에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블로그에 논문내용을 정리 요약한 기사를 게재하였다(2007년 12월 6일).

**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의 차베스가 좌파정부의 강력한 통합을 외치고 있으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선두로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가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쿠바, 볼리비아가 여기에 가세하고 있고, 우루과이에서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전통에서 최초로 좌파 대통령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멕시코에서는 좌우의 대립으로 박빙의 승부로 끝난 지난 대선의 결과를 좌파가 승복하지 않고 급기야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 나라에서 두 명의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중미의 선거에서는 니카라과 반미의 대표적인 주자인 오르떼가가 당선됨으로서 남미 좌파에 새로운 힘을 보탤다. 여기에 브라질 룰라의 재집권 성공, 에콰도르의 궤레아 후보 승리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2007년 11월 5일 중미의 작은 국가인 과테말라에서도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위에 열거한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록 대통령은 중도 또는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들의 좌파 경향은 넓게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대를 통한 남미의 새로운 대안 찾기에 활력이 붙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대통령 집권 현황

년도1)	국가	좌파 대통령
1959년	쿠바	피델 카스트로
2005년	우루과이	따바레 바스케스
2006년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2006년	칠레	미첼 바첼레트
2006년	페루	알란 가르시아
2006년	브라질	룰라 다 실바
2006년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떼가
2006년	에콰도르	라파엘 궤레아
2007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2007년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2008년	과테말라	알바로 콜롬

남미 좌파 상승분위기에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차베스 대통령은 올해 11월 스페인국 왕과의 설전으로 다시 한 번 유명해졌다. “역시 차베스는 멋있어”라는 말과 “역시 차베스는 안 돼”라는 극과 극의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서 이 일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차베스의 행보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그가 좌충우돌하면서 중남미 강경좌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좌파의 가장 중요한 나라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에게 중차대한 일이었던 개헌안이 12월 2일 국민투표에 붙여지면서 세계의 관심을

1) 각 연도는 대통령선거에서의 당선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권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받았다.

12월 3일 차베스의 개헌안이 부결로 최종결론이 났다. 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다.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번 선거가 세계적으로 반미를 외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인 차베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결과를 신중히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류언론, 특히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차베스의 실패를 마치 독재타도와 민주승리 인양 호도하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종신집권 노린 반미선동가”,²⁾ “사회개혁은 유토피아적 환상”,³⁾ “차베스 국민들에게 한방 먹다”,⁴⁾ “차베스를 무릎 꿇리다”,⁵⁾ 등의 제목을 달았다. 이는 중남미의 국민들이 차베스를 심판하였고, 역시 좌파는 나쁜 것이고, 아직까지 반미는 시대적인 조류에 어긋나며,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살리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면이나 중남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와 전망을 해 본다.

I. 개헌안 부결의 의미와 전망

I-1 이번선거는 독재심판이 아니다. 국민들은 좌파 정권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반대 50.70% 대 찬성 49.29%이다. 백분율로 보면 1.41%⁶⁾의 차이이고 투표수로 보면 반대 4,504,654 대 찬성 4,379,392로 표수는 125,262 이다. 2700만 정도로 추산되는 베네수엘라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표 차이는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찬성표는 이번 정책에 대한, 그리고 차베스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강력한 반정부 주의자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전의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결과들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2) 《연합뉴스》, 2007. 12. 3

3) 《연합뉴스》, 2007. 12. 3

4) 《조선일보》, 2007. 12. 4

5) 《조선일보》, 2007. 12. 4

6) 《조선일보》, 2007. 12. 3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보여준 차베스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최소한 50% 이상을 상회한다.⁷⁾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에 상당수는 차베스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사람들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오히려 차베스 지지 세력이 확고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고도 말 할 수 있다. 50%에 육박하는 차베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비록 반 차베스이기는 하지만 반미 좌파적 개혁안에 동조하는 세력들까지도 합친다면 베네수엘라에서 현 정권에 대한 지지 세력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한다. 즉 차베스의 기본적인 정책에는 동의하나 일인 지도자가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는 부정적이라서 베네수엘라가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가되 대통령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고, 이러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수가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를 좌파의 퇴보 혹은 차베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철회 등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극히 아전인수격의 왜곡된 해석이다.

I-2 건설한 좌파민주주의가 중남미에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 비록 미국의 개입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 전체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벽에 부딪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중남미의 좌파 국가들 사이에서도 확산 될 것이다. 이는 좌파국가들의 무리한 행보를 경계하게 함으로서 향후 정국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선거는 민중의 힘에 의하여 선출된 강력한 대통령일지라도 개혁적인 국가 운영에 필요한 방법적인 면에서는 신중함이 강조되어야 하고 행동거지 등에서 더욱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중남미 좌파 대세를 오히려 튼튼한 반석위에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차베스에 대하여 비판적인 많은 학자들도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차베스 정권의 탄생과 유지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다.⁸⁾ 물론 이 과정에서 개혁이 부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

7) 《프레시안》, 2007. 11. 8

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절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달리고 있는 자전거와 같아서 정지하면 넘어지고 빨리 달리면 이번과 같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I-3 차베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차베스 정권의 탄생과 유지는 철저히 절대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언론들은 독재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민주적 분위기 속에서 차베스가 자신의 정권야욕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 2002년 미국의 사주와 스페인의 동조 등에 힘입어 쿠데타를 일으킨 친미 보수세력을 응징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힘의 원천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서 나왔다. 차베스가 쿠데타 세력에 잡혀있을 때 그를 구한 것이 카라카스에 모인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다. 그리고 대통령신임투표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차베스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이를 근간으로 한 정책을 차베스는 펴왔고 이는 전 국민들의 국가적인 방향성에 대한 여론이며 기초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비하⁹⁾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가난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반민주적인 포퓰리즘이요,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은 세계화 추세에 맞는 합리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은 이제까지 차베스 정권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만일 이번 선거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면 어땠을 것인가 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찬성 50.70% 대 반대 49.29%라면? 과연 친미 보수세력이 이에 깨끗이 승복하였겠는가? 대대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독재타도를 외치는 시위를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를 대비한 사전 시나리오까지 작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¹⁰⁾ 따라서 이는 단순한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 사건 발생이후의 행동방식까지 이미 만들어져있던 것으로서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면을 본다면 이번에 만일 간만의 표차로 승리하였을

8) 김기현 2003,곽재성 2006.

9) 《동아일보》, 2002. 4. 12

10) 《프레시안》, 2007. 12. 4

경우 차베스의 행보에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베스가 깨끗이 선거결과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반민주라는 오명을 청산하고 다시 분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더욱 확고한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차 베스의 재집권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 다양한 사회개혁적인 정책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여론을 통해 잘 이끌어낸다면 오히려 베네수엘라 좌파연합의 정치적인 입지는 더욱 강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제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더욱 가열될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수위에 대하여 차베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 내느냐에 달려있다.

I-4 미국의 대대적인 선거개입과 언론의 차베스 죽이기

이번 선거는 이전의 중남미 선거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차베스가 이길 경우 중남 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은 점점 희생의 길이 묘연해진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 석유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한 베네수엘라에 반미 정부가 힘을 얻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수많은 미국개입의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개헌투표를 부결하기 위한 시위조장과 여론조작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증거로 미국 CIA의 내부 비망록이 공개되는 등 파문이 있어왔고 앞으로 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2007년 6월 차베스의 언론탄압이라는 내용을 담은 일련의 기사들이 실렸다. 언론은 RCTV의 송출주파수 허가 연장을 안 해주는 내용을 마치 방송국폐쇄와 언론탄압, 나아가 차베스의 독재로 연결시키는 맥락을 주로 보도하였다.¹¹⁾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케이블 TV로 전환한 RCTV를 비롯한 베네수엘라의 보수성향의 매스미디어들은 그 힘을 백 분 발휘하여 개헌반대 여론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²⁾ 결국 이를 통해 볼 때 차베스가 언론을 탄압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언론이 의도적인 차베스 죽이기에 동원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주세력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대하여도 겸허하게 받아들

11) 《연합뉴스》, 2007. 6. 29

12) 《참세상》, 2007. 12. 6

이는 민주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정도의 문제 일 수도 있겠지만 차베스 정권을 마치 언론을 탄압하는 절대적인 압제정권으로 표현한 것은 분명 의도적인 언론의 흑색선전이다.

I-5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개입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선거결과를 마치 중남미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망상을 가진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식으로 선전하며, 중남미의 민주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와 같은 반미정부 전복에도 역시 박차를 가할 것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반정부시위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미국정부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라파엘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에 대한 반대운동 역시 개헌과 연임허용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미 미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반면 재선에 이어 삼선에 도전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친미 대통령인 우리베에 대하여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다. 역사적으로 철저한 반민주 독재정부가 미국의 비호 하에 중남미에서 장기집권을 했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결국 중남미 좌파의 미래는 이중 잣대를 들고 반미좌파정권 전복을 노리는 미국의 개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I-6 다음은 볼리비아를 주목해야 한다

볼리비아는 전통적인 친미국가였으나 2005년 말 선거를 통해 친 베네수엘라 강경좌파 출신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의 행보는 차베스와 비슷하지만 수 백 년간 단 한 번도 정치, 경제적인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던 강력한 보수세력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여 혼탁한 정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속하는 주들의 독립운동이 가속화되고 이들이 주도하는 반정부시위도 격화되었다. 최근에 통과시킨 사회주의적인 개헌안에 대한 보수파의 공격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발 물러선 모랄레스 대통령은 개헌안이 법적

으로는 통과되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¹³⁾ 만일 보수파들의 여론몰이가 성공을 해서 볼리비아에서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중남미의 강경좌파들의 행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II. 개헌안 부결이 좌파의 쇠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베네수엘라와 중남미 좌파에 약이 될 수 있는 요소와 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팽팽히 맞선다. 약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한 건설한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면을 꼽을 수 있겠다. 병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눈에 가시와 같은 중남미 좌파에 대하여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노리던 국면에서 탈피하여 대대적인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중남미의 좌파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와해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게서 이르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I-1 역사적 요인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좌파 탄생은 치열한 역사의 과정에서 지속성을 가진 큰 힘을 통해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상 기득권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 본적이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오늘날의 좌파는 이러한 깊은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국민들의 선택이다. 결코 간단히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부상하기 이전까지 한 번도 정치적인 민주화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¹⁴⁾ 그리고 결정적으로 1980년대부터 불어온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결국은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권마저도 빼앗아갔다는 반성이 있었다. 잃어버린 시절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

13) <연합뉴스>, 2007. 12. 5

14) 임승수 외, 10-36

로 오늘날의 좌파가 탄생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좌파의 충분한 실패를 통한 잉태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중남미에서 좌파는 아직도 실험적인 도입단계에 머물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다수 서민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최초로 그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만큼 이 분위기가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차베스의 개혁이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근거해 있으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면은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긍정적인 정치적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점이 된다.

II-2 미국의 요인

또한 미국의 쇠퇴도 좌파 분위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채찍이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채찍질 이후에 줄 수 있는 당근이 이전 같지 않다는 점은 중남미 친미 우파의 구심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좌파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미국을 통해 얻을 것이 많은 중남미이지만 향후의 계산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더욱 양상은 복잡하게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남미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열망을 미국이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챙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그런 의문은 필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중남미 국민들과 정치권은 더욱 철저한 계산을 이미 끝내 놓은 지 오래다.

특히 중남미에 좌파 정부가 들어선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좌파가 되었다기 보다는 우파 혹은 중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좌파정부를 선택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점도 눈에 띈다. ¹⁶⁾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중남미 국민들의 좌파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정치적인 헤게모니 후퇴에 따라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15) 박제성, 39- 56, 참조.

16) 홍옥현, 39-66, 참조.

II-3 중남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요인

한편 중도좌파 혹은 실용좌파를 표방하는 브라질과 같은 나라가 중남미 좌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향후 라틴아메리카 좌파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남미가 이전까지의 차베스 행보와 같은 강경 좌파로 남는 것과 친미 우파로 되는 것 중에 브라질 입장으로서 후자가 더욱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자국이 미국에게 모니 쇄퇴 이후 세계질서가 찾고 있는 대안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야심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아우르는 “위대한 중남미의 중심 국가 브라질”이라는 위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라틴아메리카 제 국가들이 미국중심에서 브라질 혹은 브라질이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으로 이동해 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이러한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기존의 서양 혹은 미국에 예속된 구시대적인 남미를 가지고서는 브라질의 야심 찬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브라질이 남미좌파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근원적으로 볼 때 역사,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비슷한 피해의식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 등에 근거하고 있다.

주류언론들이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불편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과대하게 확대하여 전하고 있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다보면 마치 금방이라도 서로 등을 돌릴 듯 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집단이 주류언론을 동원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포함한 다른 주변 국가와의 일련의 관계를 통해서 매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남미를 관통하는 송유관 문제에서의 불협화음¹⁷⁾, 군사비증강에 따른 양국의 불편한 관계¹⁸⁾, 남미시장(Merco Sur)의 베네수엘라 가입과 관련한 브라질의 반대¹⁹⁾ 등이 언론에 의하여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되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이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어 나가고 있거나 애당초 모함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송유관 문제는 참여국가 수나 사업규모 면에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²⁰⁾ 남미시장의 베네수엘라 가입 건은 브라질 하원에서 많은 표차로 가결되어 상원 표결을 기다리

17) 《연합뉴스》, 2007. 8. 27

18) 《조선일보》, 2007. 9. 20

19) 《연합뉴스》, 2007. 11. 30

20) 《프레시안》, 2007. 8. 23

고 있는 상황이다.²¹⁾ 군사비문제에 관하여서는 서로를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확인한 바 있다.²²⁾ 애당초 양국의 군사 강국 지향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대비책으로, 브라질의 경우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 확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양국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가장 작은 원인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올 3월 달에 이루어졌던 미국 정상의 브라질 방문 때에도 부시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쓴 소리를 하자 톨라는 각국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대응함으로써 미국의 차베스 견제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²³⁾

나가는 길

이번 개헌안이 중남미 좌파에게는, 특히 베네수엘라의 좌파와 차베스에게는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들의 패배는 쓰디 쓴 것으로서 딛고 넘어서야 할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이제까지의 개혁적인 정책에 부분적인 수정과 앞으로의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의 부결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차베스와 좌파정부에게서 등을 돌린 것으로 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또한 나아가 이번 일을 통해 차베스의 쇠락을 예고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마치 독재를 심판하는 양 비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차베스의 정책에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만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금 우세하였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건설한 좌파민주주의가 중남미에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 결과 발표와 이에 대한 승복의 과정을 통해 차베스가 반민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의 패배는 어떠한 방식이던 좌파의 행보에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개입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볼리비아에서 반정부 양상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볼리비아에서

21) 《연합뉴스》, 2007. 11. 24

22) 《한겨레》, 2007. 11. 29

23) 《주간한국》, 2007. 3. 19

도 베네수엘라에 이어 좌파의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중남미 개혁세력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중남미의 좌파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와해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첫째, 역사적으로 볼 때 뿌리 깊은 반외세 정서와 민중에 대한 지향은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힘으로 나타나서 오늘날의 좌파를 만들었는데 현 좌파의 뿌리는 상당히 깊이가 있어 튼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좌파를 응징할 미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보수 우파를 지원하고 좌파를 잠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브라질과 같은 중남미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중요 세력들도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와 같은 나라들이 친미적인 성향을 가진 우파로 탈바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점은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붉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즉 결론은 “그렇게 쉽게 좌파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다. 이제까지 쉽 없이, 거침없이 달려왔던 좌파 행보의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으며 미국의 마지막 발악이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대세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지는 해요 브라질과 중남미는 작기는 하지만 꿈틀거리며 솟아나려는 해이다. 자원과 기술, 인구, 문화 등의 다양한 21세기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자아의식 또한 충분히 성숙해 있다. 이를 통해 부의 분배를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좌파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중남미 좌파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아직도 중남미 좌파를 시대착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이유로든 일인의 장기집권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단순화 되면 위험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을 해보자. 만일 카스트로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의 식민지와 같은 쿠바에서 수 백년 간 대물림을 하며 이어져왔던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차베스의 장기집권은 좋지 않다고 하자. 좌우간 장기집권자체는 나쁘다고 전제하자.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반미 좌파 장기집권보다 더 지독한 친미 반민주독재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최선이 없으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중남미의 좌파집권은 아닌지? 차악도 악이다. 그러나 최악보다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결코 쉽지 않은 고민이다. 물론 차베스와 기타 중남미 좌파가 반민주적인 독재이나 아니냐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 말이다.

참고문헌

- 곽재성,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선거와 정당;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정치」, Vol. 2006, No. 0, 39-58쪽,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2006.
- 김기현, 「차베스정권의 등장과 위기로 본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변동: 예외주의의 종결인가?」, 『라틴아메리카연구』, 16권, 1호, 2003.
- 임승수 외,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시대의 창, 2006.
- 홍육현,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유권자는 왜 좌파 정부를 선택하였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0, No. 2, 2007.
- 《동아일보》, 〈차베스는 누구...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인〉, 2002년 4월 12일, 김정안 기자.
<http://www.donga.com/fbin/output?sfm=4&n=200204120246>
- 《머니투데이》,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취임〉, 2002년 4월 14일, 문병선 기자.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204141825390063&type=2>
- 《연합뉴스》, 〈볼리비아 집권당 “국민투표 실시되면 결과 수용할 것”〉, 2007년 12월 5일, 상파울루 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3%bc%eb%a6%ac%eb%b9%84%ec%95%84&contents_id=AKR20071205004700009&search=1
- 《연합뉴스》, 〈남미좌파 3인방 사회주의 개혁은 유토피아적 환상, 전문가들 ‘유사 제국주의’ 출현 가능성 경고〉, 2007년 12월 3일, 상파울루 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c%a0%ed%86%a0%ed%94%bc%ec%95%84&contents_id=AKR20071203047500009&search=1
- 《연합뉴스》, 〈중신집권노린 반미 선동가 우고차베스〉, 2007년 12월 3일, 멕시코 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a2%85%ec%8b%a0%ec%a7%91%ea%b6%8c&contents_id=AKR20071203165600009&search=1
- 《연합뉴스》, 〈브라질 재계, 의회에 “베메르코수르 가입 중단해야”〉, 2007년 11월 30일, 상파울루 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8%8c%eb%9d%bc%ec%a7%88%20%eb%a9%94%eb%a5%b4%ec%bd%94%ec%88%98%eb%a5%b4&contents_id=AKR20071130004500009&search=1
-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 가입 가시화, 차베스 안테스공동체 복귀시사 발언으로 막판 혼선〉, 2007년 11월 24일, 상파울루 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2%a8%eb%af%b8%ea%b3%b5%eb%8f%99%ec%8b%9c%ec%9e%a5&contents_id=AKR20071124002200009&search=1

《연합뉴스》, 〈차베스, 브라질에 남미중단 가스관 건설 지연 경고〉, 2007년 8월 27일, 상파울루 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2%a0%eb%84%a4%ec%88%98%ec%97%98%eb%9d%bc%20%eb%b8%8c%eb%9d%bc%ec%a7%88%20%ea%b0%80%ec%8a%a4%ea%b4%80&contents_id=AKR20070827205800009&search=1

《연합뉴스》, 〈RCTV 사장 “차베스식 언론탄압 중남미 확산 우려”〉, 2007년 6월 29일, 상파울루 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rctv&contents_id=AKR20070629081200009&search=1

《조선일보》, 〈차베스, 국민들에게 한방 먹다, 대통령 연임 언론통제 등 개헌안, 국민투표서 부결 베네수엘라 축제분위기... 차베스 “당신들이 이겼다”〉, 2007년 12월 4일, 이용수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04/2007120400023.html

《조선일보》, 〈베네수엘라 국민, 차베스를 무릎 꿇리다〉, 2007년 12월 4일 사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04/2007120401200.html

《조선일보》, 〈브라질 ‘남미 맹주 다름’ 준비경쟁 부르나 베네수엘라〉, 2007년 9월 20일, 전병근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9/20/2007092000078.html

《주간한국》, 〈부시 중남미 5개국 순방 ‘동상이몽’ 속 체면만 구긴 행보, 방문국은 경계·미국은 기득권에 초점... 곳곳서 반미 시위로 이미지 상치〉, 2007년 3월 19일, 황유석 기자.

<http://weekly.hankooki.com/lpage/politic/200703/wk2007031916565137050.htm>

《참세상》, 〈차베스의 뼈아픈 개헌실패, 무엇 때문인가, ‘대통령 연임제한철폐’가 문제는 아니었다〉, 2007년 12월 6일, 임승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258>

《프레시안》, 〈차베스, 개헌 국민투표서 美에 판정패?, 김영길의 ‘남미리포트’ 〈293〉 미국의 차베스 반대 여론몰이 공작〉, 2007년 12월 4일, 김영길 기획위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204082531&s_menu=세계

《프레시안》, 〈소용돌이치는 베네수엘라 개헌정국, 김영길의 ‘남미리포트’ 〈285〉 아권의 반대 불구 개헌 확정될 듯〉, 2007년 11월 8일, 김영길 기획위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108092934&s_menu=세계

《프레시안》, 〈미국 1극체제, 에너지 전쟁으로 붕괴 중, 중·러, 베네수엘라-이란의 편대공격 가세〉, 2007년 8월 23일, 이승선 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823141041&s_menu=세계

《한겨레》, 〈경제성장 탄력받은 브라질 “약한 군사력 강화” 잔결음, 성장률·외환 보유고 상승세 타고 새해 군비 50% ↑ ‘중남미 맹주’ 굳히려는 의도... 해저유전 발견도 한몫〉, 2007년 11월 29일, 이정애 기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53716.html>

〈Resumen〉

El Significado y la Perspectiva del Fracaso del Cambio de la Constitución por el Regimen de Chavez: Será Veneno o Remedio para la Izquierda Latinoamericana

Song Young-Bok, Kim Dong-Yeub, Kim Seung-Soo, Park Kyeong-Joo,
Park Jang-Myun, Park Jung-Hoon, Park Jin, Oh Dong-Jin, Lee Jae-Han
Lim Sung-Jun, Jung Na-Rae, Jung You-Kyung, Choi Woo-Chul

Por esta elección se demuestra como si fuera que el pueblo está juzgando la dictadura. Sin embargo, la mayoría de los ciudadanos todavía se califican positivamente la reforma del gobierno de Chavez. Consideran que sólo tenemos que entender que se necesitaba controlar unos pasos.

Por un lado, esta elección podría ser una oportunidad de fortalecer la democracia de las Izquierdas latinoamericanas. Además, tenemos que prestar atención a que Chavez aceptó el resultado fielmente. Y esto significa el rechazamiento del régimen dictadura antidemocrática y la plena aceptación del sistema democrático. Pero a pesar de éstas, la pérdida de la elección será un obstáculo para las Izquierdas, por cualquier modo. Sobre todo, la intervención de EEUU en latinoamerica, se puede extender con más perjudicación.

Bolivia está en crisis también. Si los pueblos bolivianos se rechaza el proyecto del cambio de la Constitución de la Izquierda, es obvio que la Izquierda latinoamericana enfrentará una dificultad más ardua. Si fuera así, es posible que llegue hasta una caída dramática de la Izquierda latinoamericana. Pero ésta no será tan fácil. Por que, en primer lugar, podemos enfatizar una fuerte tendencia histórica que asume el poder del pueblo y rechazo del neoliberalismo.

También podemos indicar que el poder económico de EEUU que apoyan a los conservadores será difícil de mantener como antes. O sea, las Derechas tienen un aliado mucho más débil que antes. Por tanto, los países destacables eligen el camino pragmatismo, alejándose del centripeto americano, como Brazil. Así que

es difícil de desear que Venezuela y Bolivia cambien a la Derecha de carácter pro-America. Por lo tanto, se puede saber que la pérdida de la votación es sólo un descanso de las Izquierdas.

Entre los puntos negativos, lo más peligroso es el ataque culminante de EEUU. Pero no será una causa definitiva y absoluta para la decadencia de las Izquierdas. Lo bueno es que la conciencia del pueblo ya se han madurado y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tienen diversas condiciones para crear el siglo XXI, por su propia forma de ser, como recursos naturales, técnicas avanzadas, poblaciones significativas, fondo de cultura, entre otros.

Key Words: Larinoamerica(중남미), Venezuela(베네수엘라), Chávez(차베스), Izquierda(좌파), Constitución(개헌), Votación(선거), Brazil(브라질), Bolivia(볼리비아)